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9호

발행일 : 1999.12.20

[기증자이야기]

후회 없는 선택

이희정

1999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 49주년 기념일

마이클 잭슨 서울공연이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있던 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날이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뿌듯함, 보람을 느낀 날이었다.

94년인지 95년인지 정확히는 기억 나지 않지만 군 복무시절 골수 기증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호기심 비슷한 마음으로 기증을 원하는 신청을 냈다.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99년 3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와 유전자가 맞는 그리고 골수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 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장이 문제다. 골수기증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직장분위기가 문제였다. 직장에 대해 싸워도 보고 사정도 해 보고 우겨도 보았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기로 했다.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었다. 아쉬움도 없었다.

6월16일 사직을 했다. 그리고 24일 입원 병실에 있으며 고통스러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가져보는 평온한 시간을 가졌다.

25일 골수를 채취했다. 후에 듣자니 수혜자는 건강히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매우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후회 없는 선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또 다시 이런 기호가 있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되었던 과정이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주위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고 싶다. 이런 일을 주선해 주신 한국골수은행협회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신청하여 더 많은 생

명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하여 더 밝고 더 많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서

김세영

벌써 겨울이 온 듯 하다. 요 며칠 갑자기 찾아 온 추위로 건강은 괜찮은지,,,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네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구나. 전에도 몇 번 쓰려고는 했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이런 기회를 빌려 쓰게 되었다.

너의 얘기를 처음 듣게 된지도 벌써 일년여의 시간이 흐른 듯 싶다. 사실 대부분이 그럴것지만 누군가에게 골수를 꼭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골수를 등록한 것은 아니었다.

“설마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골수협회를 통해 너의 얘기를 들었지. 나와 조직이 일치한 누군가가 나의 골수를 받기를 원하다고. 그 얘기가 사실 처음엔 낯선 얘기처럼 막연하게만 들렸다. 그리고는 이영민 간호사님을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지. 그리고는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 번 더 조직적 합성확인검사를 해야 하고 나의 건강상태를 확실히 알기 위해 세밀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모은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너를 위한 골수채취술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너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과 건강도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더라구. 하지만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서 고민이 하나 생겼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까? 평소에 헌혈을 하는 것도 탕탁치 않아 하시던 부모님께 입원까지 해서 골수기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미루거나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정밀검사를 하고 자가혈 채취를 하고 입원을 하기까지의 거의 두 달여 이 시간을 그 고민에 빠져 있었다. 몇 번을 말씀 드리려고 입을 떼려고 하기도 하고, 골수기증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언뜻 운을 떼어 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는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입원을 했다.

입원 첫 날은 늦게 온 남자친구9지금은 한 이불 덮고 사는 사이가 되었지만)와 TV보고 떠들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야 잠이 들던 습성대로 밤을 세웠다. 그 사람은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스탠드를 켜놓고는 책을 봤지. 겨우 아침에야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와서는 링겔 주사를 꽂았다. 평소 너무나 튼튼하던 나는 그 때 처

음으로 링겔주사를 맞았다. 남들 맞는 걸 볼 때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길고 굵은 바늘을 꽂아서일까? 손목을 조금씩 움직일 때 마다 바늘이 아프게 느껴졌다. 그리고는 침상에 누워 수술실까지 가는데 그때의 기분은 참으로 묘했다. 정말로 환자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돌 칸 지나 보이는 아이가 몸에 링겔을 꽂은채 나와 함께 옮겨지는 걸 보았다.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의식을 접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올라오고 들려진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맞고 잠을 청했다. 그래 그날 하루는 힘이 들었다. 기운은 없고 밥맛도 없고 링겔을 꽂아 움직이기에는 불편했지만 그 하루의 힘듦을 어떻게 너의 그것과 비교를 하겠어? 그리고 네게 미안한 얘기지만 회복실에서 올라와서 잠을 한참자고 일어난 그때서야 난 네 걱정을 했다. 그 전까지는 “흑시나” 하는 나에 대한 걱정이 커서 네 걱정은 사실 뒷전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골수를 받은 네가 정말로 새롭게 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된거지.

또 다른 내가 생긴 것을 그때야 인식하게 될걸까. 이제 꽤 시간이 지나 너도 수술이 끝나고 치료도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치료과정을 잘 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나처럼 씩씩하게 살고 있겠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주 많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작년과는 전혀 다른 기쁨으로 보냈으면 좋겠구.

얼마 전 방송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너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 오직 골수 이식만이 희망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에 화가 난다.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 쥐고 있는 사람들(물론 같은 골수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도 경험을 하긴 했지만 난 그 일이 결과에 비해 그리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 간다는 것에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감기주사도 맞지 못할걸.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남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

언젠가부터 내가 좋아하게 된 말이 있어. “기도하는 입보다 돕는 손이 더 아름답다”고 기도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골수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고, 그래서 맞는 골수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골수기증은 40세까지 된다는데 이제 14년하고 두 달여 남았다. 그 동안 내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열 번만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또 다시 만나길 바라며 너의 행복을 빈다.

[수혜자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송소현

1998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처음엔 잘 느낄수 없었지만, 차츰 가을이 변함과 같이 내 몸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8월부터 시작된 40도를 웃도는 고열은 2~3일에 한번씩 찾아왔다. 원인 모를 멍들도 자꾸만 생겨났다. 양치질을 할때마다 생기는 출혈과 잇몸에 생기는 멍이든 살점들, 잘 느끼지 못하던 피로감 등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다.

결국 9월21일 0000 병원을 찾게 되었다. 내 병의 급박한 진전상태를 알리려는 듯 병원으로 향할 때부터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상태를 본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서두르셨다.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엄마와 나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입원을 망설이던 엄마와 나는 또 한번의 다급한 권유로 입원수속을 했다.

입원한 다음날 한 시간이 넘도록 골수 검사를 하고, C-Line을 꽂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들었는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병명은 예상하던대로 '백혈병' 이란다. 언뜻 주어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그 병이라니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다. 쏟아지는 눈물은 주체 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고인다. 하여튼, 엄마와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아니 그만 울고 싶어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오늘만 울고 울지말자'고 하시며 힘내자고 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급박하니 빨리 항암치료에 들어가자고 했다. 하지만 병원은 내병을 치료 하기엔 병원 시설이 너무 낡고 빈약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만큼 이 병원에서 내 병은 흔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보다 큰 '0000병원'으로 옮겼다. 이 병원에는 백혈병동이 따로 있었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날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대해 주었다. 그게 좋았다.

치료가 지체 되면서 내 몸은 더욱 급격히 변해갔다. 입술 윗쪽에 작은 봉우리가 생겼다. 이 봉우리는 점점 퍼지면서 얼굴전체를 붓게 했다. 붉은 기를 띠며 달덩이처럼 퍼져버린 얼굴은 정말로 보기 흉했다.

그래서 서둘러 다시 골수검사하고 히크만 시술을 받은 후 본치료(항암치료)에 들어갔다. 항암제가 몸속에 들어가자 계속되던 열도 내렸고 봉우리로 부었던 얼굴도 차츰 가라 앉았다. 또 계속된 혈소판 수혈로 혈변도 그쳤다. 시간이 지나자 차츰 혈구도 정상수치가 되어 갔다. 모든게 수월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는 골수이식을 필히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앞은 캄캄했다. 다지기(공고요법)1차 항암치료에 들어가면서 언니와 남동생

의 염색체 검사를 했다. 역시 수월하게 항암치료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의 불안했던 마음이 맞았던지 언니와 남동생 누구와도 맞질 않았다.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난 울고 있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믿고 원망스러웠다. 또한 동종간에 염색체가 맞아 쉽게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틀마저 다 미웠다. 난 그 당시 정말 이기적이고 나빴었다. 엄마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타인 골수이식절차를 신청했다.

1차 치료가 끝날 무렵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나와 맞는 이가 있다고 했다. 엄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너무 기뻐했다. 드디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던 무균실에 들어가는 이이 이루어지는듯 했다. 하지만 2차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었지만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연락은 오질 않았다. 우리의 입장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였고 이것이 하늘이 뜻이라 생각했다. 2차 항암치료는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계속되는 역겨움으로 음식은 어떤 것도 손을 댈수 없었고 백혈구의 수치가 빨리 떨어졌다. 여기에 감기까지 걸려 심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2월22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전화가 왔다. 누군가가 기증을 하겠다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 그러나 엄마와 나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골수이식을 포기하고 있던터라 처음 무척 당황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 골수이식의 경우는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부담도 무척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1999년 2월 00일 무균실에 들어갈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곳. 무균실에서의 일정은 순조로웠다. 척추검사, 골수검사, 6일간의 항암제 투여가 순조롭게 지나갔고, 2월 0일 드디어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다. 그저 수혈을 받는 것과 같았다.

일정대로 무균실 생활을 마치고 2월 0일 일반병실로 나왔다. 엄마와 나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항암치료를 받을 때도 하지 않던 구토가 심하게 계속되어 물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설사와 복통이 나를 힘들게 했다. 말로만 듣던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온 것이었다.

위, 장, 피부 할 것 없이 들이 닦쳤다. 특히 장이 심했다. 곧바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로 치료에 들어갔고 4월초쯤 나아지는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넘어 산이라고 방광성 출혈염 증세가 나타났고 하루에 3병씩 수액을 맞아야 했다.

4월말쯤 되니 이 증세는 호전 되어갔지만, 다시 장으로의 숙주반응이 시작되었다. 하루 20번도 넘는 혈변 때문에 변기통을 놓을 수 없었고 계속되는 복통으로 내 몸은 이제 지쳐 버릴대로 지쳐 침대 밖을 떠날 수가 없었다.

다시 스테로이드를 치료제로 썼고 다시 증세는 호전되었다. 증세의 호전으로 드디어 6월말 퇴원 날짜 잡혔다. 하지만 아직 세상밖으로 나가기엔 덜 익은 감자였는지 퇴원하기 이틀전 39도가 넘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다시 검사가 시작됐다.

처음엔 CMV바이러스로 열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고 피부에

붉은 반점까지 생겼다. 또 조직검사결과 숙주반응이라고 한다. 기가 막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 다시 사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해 장애 또 숙주반응이 발생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 현재 난 퇴원했다. 10월8일 드디어 병원을 탈출했다. 남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지금도 숙주반응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분께 감사한다 또한 이 새 생명을 예비해 놓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이 아픔을 통해 나 이외에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나 밖에는 몰랐을 것이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한다. 나는 건강은 잃었지만 많은 이의 사랑을 얻었다.

다시 얻은 생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부원고]

첨단 고난도 암치료 개발과 골수이식

박찬형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서는 1994년 개원초부터 면밀한 계획하에 선진 암치료를 모든 암환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암치료를 포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첨단 고난도 암치료 개발”(Cutting-edge, High-tech Cancer Therapy Development)하는 명목아래 그 infrastructure를 구축하였습니다.

첨단 실험실 연구가 환자치료에 응용되어야 함으로 우선 8명의 연구원이 일하는 암센터 임상 응용 실험실(translational Laboratory)을 설립하였고 환자의 치료가 protocol에 의하여 정확하게 시행 되고 환자는 정확한 관리를 받고 환자의 자료 수집과 기록이 철저히 됨으로써 환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결과는 국제적으로 출판될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센터를 통하여 우리병원 윤리위원회(IRB)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으며 항상 국제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상 protocol들은 이 IRB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의학연구를 위하여 환자가 불이익을 당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술하는 첨단치료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전자치료, 면역치료, 생치료, 골수이식입니다. 유전자치료는 Interleukin-12 유전자치료를 7명의 암환자에게 시술하여 5명(71.4%)에서 유의한 부작용 없이 호전을 보았으며 이 유전자치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암의 유전자치료로서는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기초작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곧 임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치료로는 신장암에서 DC세포를 이용한 치료와 혈액암에서 골수이식 과정에 면역세포를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치료는 Lascorbic acid(Vitamin C)의 체내 혈중농도를 조절하여 혈액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이미 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고 다음 환자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방면의 치료는 진실로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치료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수이식은 환자가 이식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기간과 골수이식을 위해 입원해 있는 기간, 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 크리닉을 다니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가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치료방법으로 계획중인 환자와 가족을 암센터 전문간호사가 면담하여 이식에 관한 제반사항과 스케줄, 이식과정과 비용, 보험등에 관해서 상담하고 이식전에 필요한 조직형검사화 기타 신체검사를 환자별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 후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여하는 전문의와 전문간호사, 병동 수간호사는 이식대기 환자의 이식 스케줄에 관한 모임을 매달 정기적으로 갖고 환자의 이식 날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식이 결정되면 환자는 조혈모세포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병동은 여섯개의 laminar air flow room을 내과와 소아과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균병실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1인실로 되어있으며 각 병실은 보호자를 위한 면회복도가 별도로 있어 환자와의 면회는 자유로우나 병실의 입실은 소아환자를 제외하고는 규제됩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원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간호인력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있으며 모든 간호사가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경험있는 간호사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식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치료를 위해 모든 병실에는 중환자실과 투석실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되어 있어 이식 후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골수채취는 무균시설이 되어있어 수술장에서 하며 HEPA filter가 있는 실험실에서 모든 골수 조작 냉동 분리를 하고 있으며, 비혈연간 골수이식과 조직적합인자가 부분일치하는 가족 간의 조혈모세포이식에서는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수한 조혈모세포만을 분리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조혈모세포에 오염되어 있는 암세포를 정화시키는 방법과 향후 제대혈 이식을 위한 준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퇴원시에 골수이식 클리닉 간호사와 영양사로부터 퇴원후 집에서의 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고 퇴원 후에는 혈액종양 내과 외래의 골수이식 클리닉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곳은 이식후 환자의 정기적인 검사와 투약, 생활에 관한 상담등을 간호사와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클리닉을 운영함으로 담당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며 면역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환자와 구별하여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클리닉은 외래 주사실내에 침대가 준비된 별도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조혈모세포 이식은 1996년 무균실 개원이래 150례 이상을 시술하였으며 훌륭한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5년의 시간이 지나 환자들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최상의 의료와 간호가 제공되게 하기 위해 혈액종양 전문 의들과 실험실의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 간호 교육과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장현인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한국골수은행협회 간호사 장현인 입니다.” “네?” “어디라고요?” 언제나 기증자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보이진 않지만 당황해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만 하다. 기증등록을 할 당시의 마음이 현재는 바뀌었을 수도 있고, 등록했던 것조차도 잊고 바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확인검사부터 시작해서 건강진단등 기증자 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골수기증까지는 적어도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서 기증자 분들과 전화통화는 꽤 여러 번 하고, 적어도 3~5번 정도는 만나기 때문에 친구처럼 혹은 형제 자매처럼 친숙해진다. 더욱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얼마전 13세의 소녀환자와 일치되어 면담을 했던 기증자 분의 마음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그분은 내가 전화를 드리고 설명한지 5분도 안되어 기뻐하며 “아!그래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분은 이미 6개월 전에 타인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셨다고 했다.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일치된 시점이 정확히 6개월이 된터라 아무래도 그분에게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우선은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기증자를 찾았다.

다행히 다른 일치자가 있었으며 이분도 역시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기증할 것을 결정하셨다. 기쁜 마음을 안고 처음 전화 드렸던 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 다행히 일치하는 분이 한분 더 계신다고 상황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어휴! 어제 아내랑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래도 내 자식,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우며 살아야죠,, 안그래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남도 못 도와줘요,, 이렇게라도 돕는 거죠,,”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한참동안을 기증자 분들의 얼굴을 하분 하분 떠올렸다.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지면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 기증하실 분들께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주저함이 없기를,,

조금만 더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다.